

창조경제의 인재상과 창의적 인재 확보 : 삼성SDS 사례

신원준 | 삼성SDS 인재개발그룹장



삼성SDS 소개

삼성SDS는 컨설팅, 시스템통합, IT 아웃소싱, 제조/물류IT,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센터 운영, 융·복합IT 서비스 등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와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1위의 ICT 서비스 기업이다. 삼성SDS는 1985년 설립된 이래, 정보화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정보화'시키고, '정보를 산업화'시키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삼성SDS는 우수한 인재와 축적

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ICT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창조경제의 화두 중의 하나인 ICT업에 속해있는 한 기업의 입장에서, 창조경제의 의미와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창의적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대학에 바라는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의 의미

기업의 본질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당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는 기업 활동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 환경 하에서는 남보다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IBM은 세계 최초로 PC를 개발하였고, 애플은 최초로 키보드와 모니터를 가진 애플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서 구동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최초로 대중화하였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검색엔진을 개발하였고, 페이스북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세계 최초, 최고라는 혁신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기업들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방식과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낸 기업들이다.

결국 창조경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경제 활동 메커니즘을 생성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삼성SDS ICSP 인재상 및 행동지표

인재상 항목	인재상의 의미	행동지표	행동지표의 의미
Innovative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모든 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Detail하게 실행한다	변화수용	건전한 위기의식을 토대로 변화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혁신주도	業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 성공을 위한 혁신을 주도한다
		Detail한 실행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Detail하게 실행한다
Creative	문제의식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독창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의식	제품, 서비스, 일하는 방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끊임없이 고민한다
		융합적 사고	발상의 전환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가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독창성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독창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Sustainable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갖추고 한결같은 정직·성실함으로 지속성장을 이끈다	미래지향	고객과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적·입체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학습의지	배움에 대한 열의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개발에 힘쓴다
		정직·성실	정직·성실한 태도와 엄격한 자기관리로 고객과 동료의 신뢰를 얻는다
Passionate	프로다운 열정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즐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프로의식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책임감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전정신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과감히 도전한다

삼성SDS의 인재상

창조경제 하에서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 인재상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재상은 임직원들에게 바람직한 ‘Role Model’을 제시해 주고 기업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산업화기에 기업들은 정형화된 틀에 맞

는 인재, 근면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창의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업의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 삼성SDS도 ICSP라는 인재상으로 임직원 및 잠재적인 구직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ICSP는 Innovative, Creative, Sustainable, Passionate의 약자로, 삼성SDS 내에서는 ‘ICSP한 인재’, ‘ICSP한 접근방법’처럼 ICSP 자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SDS는 ICT를 통한 혁신으로 고객의 성공을 이끌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는 회사이다. 그래서 Innovative가 인재상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맨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씨앗은 바로 Creative이다. 그리고, Innovative와 Creative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성을 갖지만 항상 고객의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Sustainable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각자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Passionate가 인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삼성SDS는 혁신 자체를 業으로 삼고 있는 회사이므로, ICSP인재상은 창조경제의 인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CSP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ICSP한 인재는 삼성SDS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이다. 그래서, ICSP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SDS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SDS는 컨설팅, IT개발 및 운영 등 대부분의 직무들이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공계 전공자 위주로 신

입사원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이공계 전공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이들 중에서 창의적인 인재에 대해서는 기업 간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인재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삼성SDS는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인문학 전공자를 융·복합형 SW 인재로 양성하는 새로운 시도인 SCSA(Samsung Convergence SW Academy)를 시작하였다.

SCSA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6개월간 960시간의 SW 집중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게 된다. 960시간은 4년제 학부생 전공수업의 1.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본 과정을 수료하면, 인문학적 감수성과 통찰력을 공학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200명 규모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고 사회적 기대도 크다는 점에서 4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삼성SDS는 재능, 끼, 열정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인 sGen Club(에스젠클럽, sGen : Smart idea Generation)도 운영하고 있다. sGen Club은 기존 인턴 또는 공채 방식과는 달리 가능성 있는 인재를 미리

선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재양성 및 확보 프로그램이다.

sGen Club의 모집 분야는 사업기획, SW 개발, 모바일, UI/UX 등 다양하다. 특히 지원 가능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는 등 끼와 재능이 있는 지원자들이 연령, 전공, 학점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sGen Club에는 15세의 고등학생, 국문학 전공자, 국내·외 올림피아드 및 경진대회 수상자 등 다양한 이력의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다.

sGen Club 멤버들에게는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과 활동비, 삼성SDS 임직원의 멘토링이 제공된다. 멤버십 종료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임원면접만으로 바로 채용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 창업이나 삼성SDS 사내 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SDS는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과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sGen Campus, ICT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석사과정 등 다양한 인재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위한 대학의 역할

창조경제에서의 대학의 역할

지원빈국인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루게 된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해 준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한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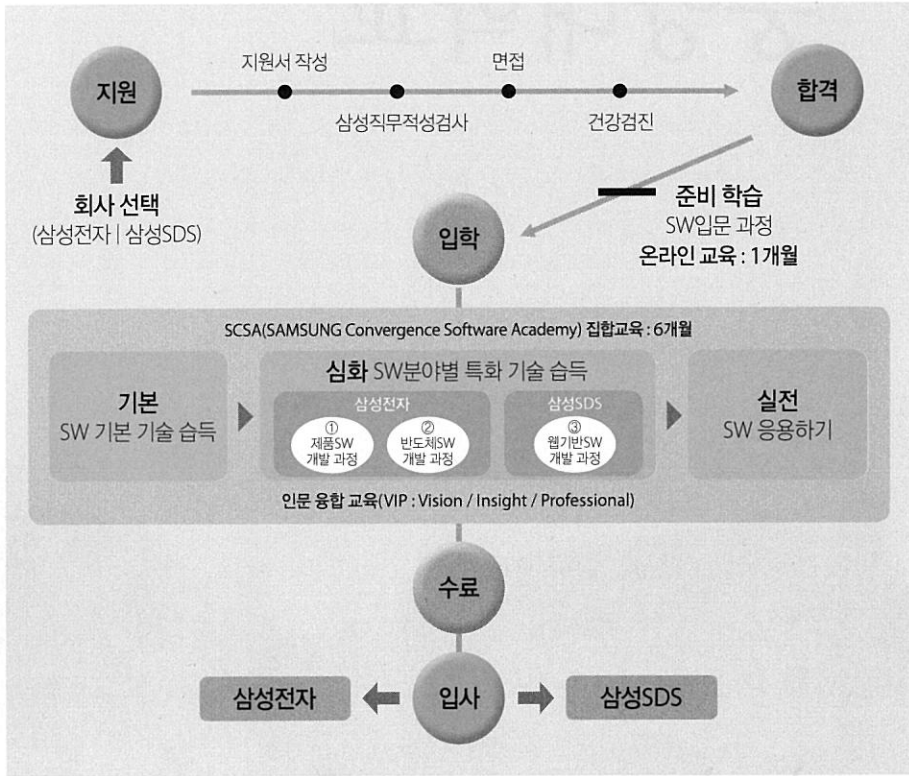
최근 많은 대학에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과정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식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가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조직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스스로 변화하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서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를 위한 대학교육은 지식보다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가진 현재의 그릇에 지식을 채워주기 보다는 가능성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을 창조하는 원동

력이 지식과 기술에서 융·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면,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 SCSA(Samsung Convergence SW Academy) 운영 프로세스】

필자소개

신원준 | 삼성SDS 인재개발그룹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경영정책학 석사,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삼성SDS 인사팀의 인재개발그룹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사전략, 채용,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사고과의 이론과 실

재』(공저)가 있으며, 평가와 보상에 대한 연구논문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Journal of Human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등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